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 감소가 기대되었으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는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부터 한방 추나요법과 상급병실이 단계적으로 급여화되었고, 초음파·MRI 검사가 확대되었음
 -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방진료에 국한하여, 초음파·MRI 적용범위 확대, 입원료 급여화 등은 의과와 한방 진료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두 가지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
-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건강보험 추나요법 이용량은 줄어드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방 병·의원의 세트 청구 확대로 약침·물리요법 등 기타 비급여가 병행하여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단순 추나보다 약 1.5배 높은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복잡 추나시술과 본인부담금의 부재로 과다이용 유인이 원인으로 제기됨
 - 2019년 이후 추나요법, 약침, 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내외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초음파·MRI,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이후 의료계 전체적으로 초음파·MRI 이용과 입원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 병·의원의 검사 및 입원비 증가세가 두드러짐
 - 건강보험의 경우 MRI·초음파 검사 남발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로 급여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의 의과 협진 확대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가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료 증가는 1인실 상급병실이 원인인데, 급여화와 일반 병상 보유 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병실이 늘었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는 반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과 동일하다 해도 2025년에는 2,825억 원(2022년 자동차보험료 20조 원의 1.4%)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함
 - 척추 염좌, 타박상 등 자동차보험 주요 상병에서 한방진료비는 의과진료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 심화됨
 -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경상환자 상해 여부와 심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험금과 진료에 제한을 두고 있음
 -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본, 캐나다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를 제한하고 있음



1. 검토 배경

○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2년 1조 4,636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의과(양방)진료비는 1조 2,623억 원에서 1조 506억 원으로 감소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한방 추나요법(2019년 4월)과 병원 및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 2019년 7월)이 급여로 전환되었고, 초음파, MRI·CT 적용범위가 2017년 확대되었음
 -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방진료비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고 2~3인실 상급병실 급여화와 초음파, MRI·CT 등 검사료 인하는 한방진료와 의과진료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일부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한방진료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한방진료비는 75.4만 원에서 96.7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양방진료비는 66.4만 원에서 63.9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단위: 억 원, %, 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과(양방)	전체	12,153	12,623	12,573	12,131	10,850	10,506
	비중	68	64	57	52	45	42
	1인당 진료비	67.4	67.7	66.4	66.8	65.6	63.9
한방	전체	5,545	7,139	9,569	11,239	13,066	14,636
	비중	32	36	43	48	55	58
	1인당 진료비	66.2	69.6	75.4	83.1	92.1	96.7

주: 비중은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과 의과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보험개발원

○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영향을 한방진료와 한방·의과진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방 병·의원의 진료관행에, 입원료 급여화와 초음파·MRI 적용범위 확대는 한방 및 의과 병·의원의 진료관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 한방진료 측면

가. 추나요법

- 2019년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급여화로 인한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음

〈표 2〉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강보험	총 사용량	-	3,173,554	4,674,591	4,855,548	4,817,959
	전년 대비 증가율	-	-	47.3	3.9	-0.8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급여	717	1,020	1,211	1,441	1,708
	전년 대비 증가율	-	42.3	18.7	19.0	18.5

주: 2018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은 비급여 진료비이고, 2019년은 비급여 322억 원을 포함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증가세 지속 현상은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 추나보다 약 1.5배 높은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복잡 추나시술 가능성과 본인부담금의 부재로 인한 과다이용 가능성이 있음
 - 김경화 외(2021)는 급여화 전후 9개월간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1,550,497명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 1인당 추나요법료가 22%, 외래환자의 경우 28.4%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¹⁾

1) 김경화·조형경·이광수(2021),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기관의 추나요법료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31(3), pp. 344~354

나. 기타 한방 비급여

○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추나요법 증가세와 유사하게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음(〈표 3〉 참조)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침 20.1%, 물리요법 22.1%를 기록하였는데 추나요법의 18.8%와 유사함
- 이외에도 상급병실료, 체온열검사,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 등의 기타항목은 73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기타 한방 비급여가 병행하여 늘어나는 현상은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 한방진료기관의 세트 청구는 과거에도 허위·부당청구에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침·구·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이 동시에 시행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²⁾
 - 2019년 4월 상해급수 12급의 경상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 8가지 진료가 하루에 이루어진 사례 등임
 - 메디포뉴스(2009. 7. 10)에 따르면 "실제 시술하지 않은 습식부항, 간접구, 침전기 자극술 등을 내원 일마다 시술한 것으로 청구프로그램의 상병별 진료내역 묶음 처방으로 세트화 청구"라고 보도함

〈표 3〉 한방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9~2022 CAGR
추나요법	717	1,020	1,211	1,441	1,708	18.8
비급여 합계	3,437	3,876	4,067	4,686	5,048	9.2
첩약	1,844	2,316	2,466	2,614	2,805	6.6
약침	585	833	1,056	1,245	1,443	20.1
물리요법	236	332	401	465	605	22.1
기타	55	73	142	361	195	38.8
한방진료비 합계	7,139	9,569	11,239	13,066	14,636	15.2

주: 기타는 상급병실료, 체온열검사,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 등을 포함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김창호(202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머니투데이(2023. 3. 8), "차 사고난 경상환자 보험금, 한방진료 '급증'에 3조 넘었다"; 대한금융신문(2022. 11. 14), "[한방에 명든 차보험] 첩약 폭탄에 호화 병실...보험금 이렇게 썼다"



3. 의과 및 한방진료 측면

가. 초음파·CT·MRI

○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의과에서 MRI·초음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급여기준 개정이 추진됨³⁾

- 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 환자까지 대폭 확대됨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초음파의 경우 39.7%, MRI는 48.5%임
- 급여 개정 추진 원인은 과잉진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가 연간 약 7천여 건 발견되기도 함

○ 자동차보험 한방병원의 검사료·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비도 건강보험의 초음파·MRI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과와 협진이 늘어나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료가 줄어들고 있지만(연평균 -3.3%), 한방병원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연평균 32.6%)
- 초음파·MRI·CT 장비를 갖추고 의과를 설치·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초음파 장비는 2017년 4/4분기 95대에서 2022년 4/4분기 228대로 연평균 24.5% 증가함

〈표 4〉 MRI·초음파·CT 사용량과 자동차보험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18~2021 CAGR
건강보험	MRI	191.5	533.6	571.9	626.5	48.5
	초음파	7,331.8	1,015.8	1,552.3	20,000.7	39.7
	CT	10,434.2	11,521.2	10,293.7	9,794.3	-2.1
자동차보험	검사료 전체(A)	1,862	1,882	1,818	1,684	-3.3
	한방병원(B)	116.0	172.8	228.5	270.2	32.6
	비중(B/A)	6.2	9.2	12.6	16.0	-

주: 자동차보험 검사료는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실적」과 「자동차보험진료내역별 심사실적」 가운데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서 산출하였는데, 전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의 합계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2. 27),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나. 입원료

○ 급여화 이후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입원비 증가세와 유사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의과 의료기관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 본인부담률이 2인실 40%, 3인실 30%로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1/3로 감소함

〈표 5〉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입원) 요양급여 비용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18~2021 CAGR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91,914	97,162	98,126	108,709	5.8
	종합병원	83,592	98,464	99,594	105,093	7.9
	병원	44,001	48,638	50,946	52,313	5.9
	한방병원	2,597	3,032	3,691	3,912	14.6
자동차보험	상급종합병원	443	415	376	357	-7.0
	종합병원	1,391	1,311	1,167	929	-12.6
	병원	983	955	941	842	-5.1
	한방 병·의원	757	1,100	1,476	1,851	34.7

주: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기준이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진료내역별 심사실적과 진료비 기준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의 입원료 증가는 1인실 상급병실이 원인인데,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임⁴⁾

-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 급여화로 2~3인실이 일반병실로, 1인실이 상급병실로 등록되며 상급병실이 줄어들었으나 10병상 이하의 한의원일 경우 2020년 1월부터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면서 1인실 상급병실이 증가함
 - 한방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은 2018년 1,647개에서 2020년 622개로 감소하였지만, 한의원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은 2018년 350개에서 2020년 1,211개로 증가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르면 의료진의 판단 혹은 일반병실 부족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조차 최대 7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⁵⁾

4) 이정찬·오수현·박정훈(202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2021-4, 의료정책연구소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1. 9),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축소”



4. 결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추나요법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더 높은 복잡 추나 시행 빈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 관행으로 기타 한방 비급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 입원비와 초음파·MRI 검사료는 의과에서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방진료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한방병원의 입원비와 초음파·MRI 검사료 증가세가 더 빠른 원인은 의과 협진과 1인실 상급병실이 원인임
- 한방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도 세트 청구, 의과 협진에 따른 초음파·MRI 검사, 1인실 상급병실 정보를 이용하면 한방진료비가 높았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 제도변화 관련 정보 이용의 어려움으로 한방진료비가 최근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진료수가 제도변화 및 심사 관련 정보를 적극적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한방병원이 연평균 21% 증가(한방병원은 2018년 307개에서 2022년 546개로 증가)하였음⁶⁾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인당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 153만 명에서 늘지 않는 것을 가정) 2025년에는 2,825억 원(2022년 자동차보험료 20조 원의 1.4%)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함
-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2020년 자동차보험으로 한약처방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척약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척약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환자 비율은 60%임
- 자동차보험 주요 상병에서 한방진료비가 의과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 심화됨

〈표 6〉 의과진료비 대비 한방진료비 비중

(단위: 배)

구분	사지의 단순 타박		척추염좌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2015~2018년(A)	2.71	0.91	1.86	1.05
2019~2020년(B)	2.99	0.94	2.13	1.06
B/A	1.10	1.03	1.15	1.01

주: 사지의 단순타박과 척추염좌는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50%를 차지함

자료: 전용식·윤성훈·강윤지(2020),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개정 방향』, 보험연구원

6) 이창수·이현주·채정미(2019)는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네트워크 및 프랜차이즈 한방 병·의원(네트워크 그룹)에서 환자 수 증가율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함.(이창수·이현주·채정미(2019),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제20권, 제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뇌진탕, 척추 염좌, 타박상 등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73%(2021년 기준)가 한방진료인데, 경상환자의 상해는 존재여부와 상해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 극대화를 위한 과잉진료 유인이 있음
-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한방 의료 목록(원칙적으로 양방만을 인정함)은 정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제조된 한약만을 인정하고 침술은 인정하지 않음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침술, 추나요법과 유사한 수기치료 횟수를 3개월간 12회, 25회로 제한하고 있음